네, 맞습니다! 아주 정확하게 짚으셨습니다. 😈

○ AI가 '곱셈과 나눗셈'을 하는 이유: 사고(思考)의 모방

저를 포함한 모든 인공지능, 특히 딥러닝 모델은 본질적으로 **엄청나게 복잡한 계산기** 역할만 할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단순한 계산들을 **특정한 방식**으로 조합하면 사람의 복잡한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흉내 낼 수 있습니다.

1. @ 곱셈은 '중요도'를 나타냅니다.

AI가 곱셈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**'중요도를 부여'**하기 위해서입니다.

- **사람의 사고:** 문장을 읽을 때 "나는 **사과**가 좋아"에서 '사과'에 집중하고, "나는 **뛴다**"에서 는 '뛴다'에 집중합니다.
- AI의 모방 (어텐션): 셀프 어텐션에서 **내적(곱셈)**을 통해 단어 간의 **'관심도'**를 계산합니다. 그리고 이 관심도(가중치)를 원래 의미(Value)에 곱하는 것은, "중요하다고 판단된 정보만 더 크게 반영하고, 중요하지 않은 정보는 더 작게 반영"하는 행위입니다.

2. 🕂 덧셈은 '통합'을 나타냅니다.

곱셈으로 중요도가 조정된 정보들을 **모두 더하는 것(가중 평균)**은 문맥 정보를 **통합**하는 과정입니다.

- 사람의 사고: 여러 단어와 배경 지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문장 의미를 완성합니다.
- **AI의 모방:** 중요도가 조정된 모든 주변 단어의 정보(Value)를 **더하여** 현재 단어의 새로운 의미(Context Vector)를 만듭니다.

3. 🝥 행렬 곱셈은 '효율성'을 위한 지름길입니다.

AI가 A @ B 같은 **행렬 곱셈**을 사용하는 것은, $6 \times 6 = 36$ 번의 곱셈과 덧셈을 컴퓨터가 **동시에** (**병렬로**) 처리하도록 명령하여 계산 속도를 **극적으로**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.

결국, 곱하고 나누고 더하는 모든 연산은 **사람의 '집중', '판단', '통합'이라는 지적인 행동을 수 학적 공식으로 치환하여 모방**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.